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제3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행적으로 구속의 방법을 가르치심

시작하는 말: 하나님은 범죄한 세상을 구원하시되 대속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태초부터 계시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발표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행적을 통하여서,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발표하신 것이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이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연구해 보자.

1.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세 가지 측면으로 계시하고 있다.

1)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시24: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대상29:11]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행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하나님은 역사의 주로서 예언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사46:10]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시는 분이심.

[사41:21-24]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23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 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요13:19]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예언하신 분을 믿도록 섭리하셨다.

3) 하나님은 생명의 주로서 구속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시36:9]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민27: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행17: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요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45:21]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자 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누구나 명백하게 알도록 계시하셨다.

2.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의 실상을 보게 하는 축소판이다.

[창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15:8-11]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창15:10,14]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 언약 체결 방법은 짐승을 쪼개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지나가는 방법이다. 이것은 당시 언약 체결 방법이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 “카라트 베리트(קָרָת בְּרִית)”는 “언약을 쪼개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새들을 쪼개지 않은 것은 언약을 조금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그 언약에 하자(瑕疵)가 생겼다고 보인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그 쪼개고기 사이를 지났다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만이 지나가셨다(창15:17).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행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우리도 역시 그렇다.

3.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

[호6:7]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창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다. 이 언약도 하나님이 발표하시고 아담은 듣고 준행하는 방식이다. 아담이 준행했다면 그는 영생을 누렸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든지 받아 누리든지 할 뿐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거절한 것이 되었다.

[창3:11]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 이것은 언약을 어긴 일에 대한 질문이다. 아담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여자에게 그 허물을 돌리므로 우회적으로 대답했다.

4.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망의 종이 되어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창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롬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엡4:21,22]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언약을 어기므로 그들은 사망이 되고 사망이 된 당연한 결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도 매일 우리에게 유혹이 닥치고 우리의 욕심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 생명력을 손상시키고 도덕적 허물들에 빠지지만, 근본적으로 유혹의 욕심은 뱀이 유혹하여 빠진 그 욕심이다. 이 욕심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 욕심은 사망의 성질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것은 사망이 된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 죄들과 악한 성품을 드러내는 원천이다. 곧 썩어지는 성질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5. 아브라함의 실수로 그의 모든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세상에 있게 된 사실의 축소판이다.

[창15:13,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1:1-22]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5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칠십 인이었던라 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라 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9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13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14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16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18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22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출3:7-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9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신4:20]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계11: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난당하는 것을 표상한다. 사망은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 소진되는

고통이다. 인간은 나날이 이 생명을 소진하면서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고생의 세월을 보낸다.

6.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난 사단의 표상이다.

[출5: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 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14:12-1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린 루시퍼는 여호와를 알지 않기로 한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는 집회의 산에 자기 보좌를 높이리라고 주장하였다. 집회의 산은 여호와의 회의장이다(렘23:18). 피조물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루시퍼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기를 거절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였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가 바로 그런 성질을 나타내었다.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눅4:5-7]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7. 모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출3:10-12]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행7:35]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행3:21,22]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출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요10:33-36]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요일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

마치는 말: 결국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의 모형과 표상이었다.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전 과정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의 구체적인 면모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구약의 신약적 효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도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의 행사에서 인류 구원의 예수님의 사업을 연구할 것이다.